

해외여행도 좋지만

김강석/SBS보도국 사회1부 차장

지난 여름 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이 봇물을 이뤘다.

— IMF 체제이후 되살아난 해외여행은 갈수록 횡수가 잦아지고 있다. 자연히 국내의 해외여행객보다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이 많아져 관광수지도 적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관광수지 적자가 경제를 위협할 정도가 아닌 한 해외여행에 대해 국수주의적 시각으로 매도만 하기엔 세계는 이미 지구촌화(Globalization)돼 버렸다. 해외여행을 통해 얼마만큼 얻을 것인가 하는데 초점이 맞춰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초등학교생에게까지 번진 어학연수가 어린 아이들간의 위화감 조성이나 외화 낭비 등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어학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 선진국의 문화와 질서를 일찌감치 배우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면 나름대로 뜻은 있을 것이다.

지난 여름 필자도 해외여행할 기회가 있었다. 그동안 취재를 위한 해외 여행은 여러 차례 했지만 가족끼리 함께하는 여행은 기회가 많지 않아 그만큼 기대도 컸다.

10일 동안 런던, 파리, 제네바, 알프스, 밀라노, 피렌체, 로마, 폼페이, 프랑크푸르트를 도는 여행이었던 만큼 일정은 짝짝하고 힘이 들었다.

30여명의 일행 중에는 의외로 3살짜리에서부터 중학생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9명이나 됐다.

어른들도 힘든 여행이어서 자연히 아이들의 고생도 심했다. 문제는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아이들까지 해외여행에 나서야 하는 점이다. 부모들이 어렵사리 마련한 해외여행인데, 아이들을 마땅히 맡길 데도 없어 동행한 것이라 생각되지만

비용부담과 힘든 여행길을 감안한다면 부모나 아이들에게 별로 득 될게 없어 보였다.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안팎의 어린 아이들이 과연 다른 나라를 보고 배우고 느낄 만한 능력이 있느냐고 반문한다면 어린이의 동행은 지적 허영심과 과시용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갖게 할 수밖에 없다. 초등학교 저학년생에게까지 유행처럼



번진 해외여행 바람도 부모들의 이런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번 해외여행길에서는 세계 각국의 여행단 가운데도 한국인 여행단이 유독 어린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왔기 때문이다.

안전사고 등의 위험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다행히 아이들이 사고를 내거나 다친 일은 없었지만 하루에 수백킬로미터씩 다녀야 하는 버스 여행 내내 아이들이 장난치고 소란을 피워 어떤 가이드는 연신 아이들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하다 나중에 신경질적인 반응까지 보였다. 자연 아이들을 동반하지 않은 일행에게도 음으로 양으로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 하지만 아이들을 동반한 일부 부모들은 워낙 피곤해서인지 이런 일에 대해서도 별로 개의치 않는 눈치였다.

세계인이 되는 것은 해외에 많이 나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어학실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예의와 매너를 익히고 인종적 민족적 편견을 버리는, 몸에서부터 이른바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s)이 베어 나와야 가능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한글뉴스**